

한국사

(A)

(1번~20번)

(7급)

1.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시대의 유적이 아닌 것은?

웃은 방추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을 줄 알게 되었고 돌로 만든 팽이, 낫 등을 이용하여 조, 꾀, 수수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. 집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.

- ① 고령 지산동 유적 ② 양양 오산리 유적
③ 봉산 지탑리 유적 ④ 부산 동삼동 유적

2.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?

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.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곤식으로 갚는다.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.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. -『한서』-

- ① 상, 대부,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.
② 말, 주옥, 모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.
③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다.
④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기도 하였다.

3. 다음 ⑦과의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있을 때 (⑦)이/가 쳐 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하자 비축해 둔 군량이 바닥나버렸다.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“만약 힘을 다해 싸워 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.”고 설득한 뒤 관노(官奴) 문서를 가져다 불살라 버리고 노획한 마소를 나누어 주었다.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로 돌진하니 (⑦)은/는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. -『고려사』-

- ① 귀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.
② 강화도로 천도하며 항쟁하였다.
③ 홍화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.
④ 산성, 해도 입보 정책을 펼쳤다.

4. ⑦~⑨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?

475년	532년	612년	654년	668년
⑦	⑨	⑩	⑪	
백제 응진 천도	금관가야 멸망	살수 대첩	무열왕 즉위	고구려 멸망

- ① ⑦ –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.
② ⑨ – 백제가 역사서인 『서기』를 편찬하였다.
③ ⑩ –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었다.
④ ⑪ – 상대등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.

5. 다음은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.
⑩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?

⑦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.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하였다. -『삼국사기』「고구려본기」-
⑧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. … 신주의 군주인 김무성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, …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. 이에 모든 군사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크게 이겨서 …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. -『삼국사기』「신라본기」-

- ①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.
② 고구려가 동쪽의 옥저를 복속시켰다.
③ 신라는 지방의 행정구역으로 9주를 설치했다.
④ 신라가 왜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구려에 원군을 청했다.

6. 다음의 행사를 주관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8일 간의 화성 행차>

첫째 날: 창덕궁을 출발해서 시흥에 도착하다.
둘째 날: 시흥을 출발해서 화성에 도착하다.
셋째 날: 향교 대성전을 참배하고 과거를 실시하다.
넷째 날: 현릉원을 참배하고 장용영의 군사를 조련시키다.
다섯째 날: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베풀다.
여섯째 날: 노인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다.
일곱째 날: 화성을 출발해서 시흥에 도착하다.
여덟째 날: 시흥을 출발해서 창덕궁에 도착하다.

- ① 병법서인 『무예도보통지』를 편찬하였다.
② 초계문신제도를 도입하여 관료들을 재교육하였다.
③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.
④ 『대전회통』을 편찬하여 국정 수행의 편의를 도모했다.

7.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
⑦ 『오주연문장전산고』	⑨ 『만기요람』
⑧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	⑩ 『연려실기술』
⑩ 『동의보감』	

- ① ⑦-⑨-⑩-⑪-⑫ ② ⑨-⑩-⑪-⑫-⑦
③ ⑩-⑦-⑪-⑫-⑨ ④ ⑩-⑦-⑨-⑪-⑫

8. 백제의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.
② 무령왕이 문헌 관의 재료는 양나라에서 가져온 금송이다.
③ 칠지도에는 백제왕이 왜왕에게 보낸 칼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.
④ 목책과 우물, 사당 등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 시기에 축조되었다.

9.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,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변경하였다.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토지 1결당 쌀 12두만 납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은 일단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.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포목, 동전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.

<보기>

- ① 재정 감소분을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.
②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다.
③ 인정, 족장 등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④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.

- ① ⑦, ⑨ ② ⑦, ⑩ ③ ⑨, ⑪ ④ ⑩, ⑪

10. 고려시대의 역사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려 초부터 역대 왕의 치적을 기록한 『실록』을 편찬했는데, 조선 초기에 『고려사』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.
② 의종 때 김관의가 『편년통록』을 편찬하여 태조 왕건의 가계를 서술하였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.
③ 민지가 편찬한 『본조편년강목』에는 성리학적인 역사서술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.
④ 이승휴는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『사략』을 편찬하였는데, 현재는 ‘사찬’만이 남아있다.

11. 세종 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해시계인 혼의와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었다.
 - 『의방유취』라는 의학 백과 사전을 편찬하였다.
 -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『칠정산』을 만들었다.
 -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.

12. 밑줄 친 ‘적’이 요구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적은 모두 천민 노예이므로 양반, 사족을 가장 중요하였다. 길에서 것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하였다. “너도 양반인가?” 것을 빼앗아 찢어 버리거나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 주었다. 무릇 집안 노비로서 적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, 비록 적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적을 끌어다 대며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면천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. …(중략)… 때로 양반 가운데 주인과 노비가 함께 적을 따른 경우도 있었다. 이들은 서로를 ‘집장’이라 부르면서 적의 법도를 따랐다. 백정이나 재민들도 평민이나 양반과 평등한 예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더욱 치를 떨었다.

—『오하기문』—

<보기>

- 무명잡세를 폐지할 것
- 조혼(早婚)을 금지할 것
-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
-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, 인재를 등용할 것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㉣ ④ ㉔, ㉕

13. 조선시대 과전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㉠~㉕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과전은 ⑦ 18등급으로 나누어 경기 지방의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는데, 이때 관리들에게 준 토지는 ⑦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. 이 토지를 ㉕ 받은 자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. ㉕ 공신전은 세습을 할 수 없었으나, 죽은 관료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㉙ 수신전, 훌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- ① ㉠, ㉡ ② ㉠, ㉡, ㉢
③ ㉠, ㉡, ㉢ ④ ㉔, ㉕

14. 발해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건국 직후 신라와 협력하여 당 세력을 몰아냈다.
-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 평양을 남경으로 삼았다.
- ‘황상’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황제국가임을 내세웠다.
- 당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 자칭하였다.

15. 고려,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고려 전기의 과거에는 문과, 무과, 잡과, 승과가 있었다.
- 조선 초부터 현직 관리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.
- 조선의 과거제도는 191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되었다.
- 조선 후기에는 중인이 과거에 급제하면 교서관에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.

16. 일본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?

- 비밀 각서를 통해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.
-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를,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채용하게 하였다.
-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.
- 대한 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다.

- ① ㉡-㉠-㉔-㉕ ② ㉡-㉔-㉠-㉕
③ ㉔-㉠-㉡-㉕ ④ ㉔-㉡-㉠-㉕

17. 다음의 선거 벽보가 사용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

-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.
-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었다.
- 부정선거로 자유당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.
- 사사오입 개헌 이후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였다.

18. 광복 후 ㉠과 ㉡의 주장을 한 사람을 옳게 연결한 것은?

-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
- 연합성 신민주주의

- ① ㉠ 안재홍 ㉡ 백남운 ② ㉠ 김규식 ㉡ 여운형
③ ㉠ 안재홍 ㉡ 여운형 ④ ㉠ 김규식 ㉡ 백남운

19.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?

- 길동 : 이웃집 아저씨가 현명 경찰에게 잡혀가서 태형을 당하였다고 하네.
- 수일 :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제복을 입고 칼까지 차고 수업을 하고 있어.

-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.
-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.
- 배재 학당과 이화 학당이 설립되었다.
-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다.

20. 밑줄 친 ‘총선거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948년 5월 10일, 마침내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.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,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·공포하였다.

-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이 이 선거의 투표권을 가졌다.
-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.
- 이 선거를 앞두고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김규식은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.
- 제주도에서는 이 선거에 반대한 세력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.